

# 장애인이 살기 좋은 임실 우뚝

### 군 보건의료원, 무료 재활치료실 운영 등 맞춤형 복지정책 큰 호응

임실군이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군은 민선 7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기조로 소외받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3천여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진행,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및 장애등급을 받기 전 재활이 필요한 지역주민은 보건의료원 관리대상자로 등록 후 재활치료, 취미 프로그램 참여, 건강관리,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재활치료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재활전용 트레이닝과 워킹데일, 슬링, 좌식스텝퍼, 작업치료 도구 등 전문 재활치료 장비를 갖추고, 전문인력(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이



임실군이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개개인에 맞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치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제로 운영 중으로 사전 상담 및 재활치료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활치료실(640-316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그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재활촉진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퇴원 환자,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강소농 모임 '꽃길을 걷는 농부' 전국 진출

### 농진청, 자율모임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팜파티·해외교류 등 사업 소개

순창군 농부들의 강소농 자율모임체인 '꽃길을 걷는 농부'가 지난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의 강소농자율모임체들의 우수사례 확산과 사업화 추진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11월 29일 2018 강소농대회에서 우승팀을 결정하게 된다.

강소농이란 끊임 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경영역신을 실천하는 소규모 농업경영체를 의미하며 '꽃길을 걷는 농부'는 지난해 순창군이 운영한 '강소농반' 교육 졸업생 15농가가 모여 만든 자율모임체다.

야생화, 블루베리 등 특화작목, 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이 참여했으며 매월 정기모임과 임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꾸러미 상품과 공동생산물에 활용할 공동브랜드작업과 자체 로고도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



순창군 '꽃길을 걷는 농부'가 지난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했다.

역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날 발표는 '꿈을 이야기 하는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꽃길을 걷는 농부 대표인 최성철씨가 맡았다. 팜파티, 해외교류, 공동마케팅 등 지역 농부들이 함께 해서 빛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을 소개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실제 꽃길을 걷는 농부 모임은 자체

페이스북 교육과 블로그 교육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성철 대표는 "꽃길을 걷는 농부는 농민 스스로 지역농업의 희망을 만드는 모임이다"면서 "다양한 교류와 변화하는 농업트렌드를 배워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풍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16명의 회원 참여로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랑의 밑반찬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 날씨만큼 뜨거운 이웃사랑 '훈훈'

### 순창 풍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사랑의 밑반찬 봉사

순창 풍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동기)는 19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16명의 회원 참여로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랑의 밑반찬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풍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매월 2회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5가구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대상 가구가 한정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회원들이 자체 회비를 모아 진행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날 풍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신선한 반찬재료를 구입해 직접 정성을 들여 만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가정 10가

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또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위로로 건네는 등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겼다.

풍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동기 위원장은 "외롭게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아 밑반찬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으며, 신태승 풍산면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고를 해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준비한 밑반찬으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강성원 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남원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을 선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남원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6,481억 원보다 882억 원(13.61%)이 증액된 총 7,363억 원이다.

강성원 위원장은 "시의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경찰, 길잃은 치매노인 도와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8일 밤 11시경 임실 우체국 앞을 배회한다는 할머니를 발견,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임실경찰은 임실 우체국 앞에 치매노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횡설수설 하며 배회 하고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임실 운수과출소 직원은 길잃은 할머니에게 이름, 가족, 주소등을 물었으나 이름외에는 기억을 하지 못해,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 전주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족에게 연락하여 노인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인계 했다.

김광호 서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 대책등 지문등 사전등록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종 치매노인 수색, 배회 감지기,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매노인의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보건소, 11월까지 매달 토요일 부부출산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오는 21일 오전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토요 부부출산교실'을 운영하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교실운영 대상자는 임신 12주~32주의 맞벌이 부부로,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모와 태아의 정서적 친밀도를 상승시키고, 임신과 출산의 주체가 부부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교육에서는 국제모유수유전문가를 통해 모유수유의 장점과 중요성, 모유수유 자세 및 유방관리방법, 수유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대처방법과 아기인형을 활용한 아기안기, 젖 먹이기, 트립시키기, 속싸개 싸는 법 등



을 습득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산후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